

# “어머니, 영아 발달 걱정 끝... 코디가 척척 해결”

### 천안시, 처음 실시 어린이집 파견 꼼꼼 체크 돌상도 대여, 아기 옷 등 전화 한통으로 이용

충청남도 천안시는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보육지원 주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육 관련 주요 사업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순회치료사 파견 사업 △발달 코디네이터 사업 △어린이집 보육 이음 멘토링 사업 △돌상 대여 사업 총 4가지다.

우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순회치료사 파견 사업'은 2024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부터는 확대 운영에 나선다.

이 사업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순회

치료사를 파견해 발달 지연 영유아에게 언어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0개소 장애아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30개소로 확대돼 아동 90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어린이집 발달 코디네이터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발달 코디네이터를 어린이집으로 파견해 영아의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부모와 교사에게 환경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천안시가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대1 멘토링을 실시해 신규어린이집 원장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과 3년 이하의 신규 어린이집 원장을

'어린이집 보육 이음 멘토링 사업'은 보육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과 3년 이하의 신규 어린이집 원장을

1대1 멘토링을 실시해 신규어린이집 원장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 경력의 어린이집 원장과 3년 이하의 신규 어린이집 원장을

(앞뒤로 30일 이내)를 맞이한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테이블보와 아기 옷 관련 용품 등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돌상 대여는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차임점·불당점·청룡점에서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천안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신규·확대 추진하는 사업들은 천안시 육아 지원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며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천안시가 육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진서 기자 jjs@skyedaily.com

**지역사랑상품권**

충성사랑상품권 10% 캐시백 혜택

결제수단

충성군이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맹겨요'에 충성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충성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충성, 상생배달앱 '맹겨요' 결제 사랑상품권 10% 캐시백 혜택

충청남도 충성군이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맹겨요'에 충성사랑상품권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충성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맹겨요' 배달앱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충남도와 신한은행이 '충청남도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형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비해 2.0%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율 고정료·입점수수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소비자는 '맹겨요' 앱 내 지역상품권 구매소에서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맹겨요'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할인혜택·장바구니 맹겨주는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여 추가 할인혜택을 이용할 수도 있어 소비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맹겨요'는 신규 고객 및 재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만 원 할인쿠폰과 매월 11일 및 22일에 탕데이 프로모션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한다.

김태욱 경제정책과장은 “충청남도 상생배달앱 '맹겨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맹겨요' 앱과 '충성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선애 기자 jjs@skyedaily.com

# 광주시, 카자흐스탄·몽골 수출시장 개척 청신호

### 중소기업 10개사 참여... 의료기기·미용·식품 공략 상당 109건 977만달러·계약 2건 152만달러 등 성과

광주광역시와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독립국가연합(CIS) 해외시장개척단이 3월31일부터 4월5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출상담 109건·977만 달러·양해각서(MOU) 11건·140만 달러·수출계약 2건·152만 달러를 체결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고환율·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세계 통상환경에 대응해 지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체시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에 비롯해 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광역지자체가 공동 개최해 현지 바이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지역 중소기업 10곳과 독립국가연합 해외시장개척단을 꾸려 수출 상담회를 열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거대처를 모색하고 독립국가연합 시장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개척단에는 거성테크·원·나눔테크·노보 인터내셔널·노아코스메타·라피네제이서차·소프트웬스·원솔루션·농업회사법인 유가농마루·한국제다 등 종합소비재 품목의 지역 중소기업 10곳이 참가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

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제조하는 나눔테크가 142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화장품을 제조하는 라피네제이는 1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LED피부미용기기를 제조하는 소프트웬스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각각 51만 달러·20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이끄는 이번 상담회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또 진단용 X선 촬영장치 제조업체 원솔루션도 카자흐스탄과 몽골에서 각각 14만 달러·125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보였다.

광주시는 이번 수출 상담 및 MOU 성과를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 해외 물류바·해외지사화·무역보험료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CIS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지 시장 이해



광주광역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수출상담회 모습.

도와 실질적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독립국가연합 전문 물류기업의 물류창고와 카자흐스탄 대표 식품 제조기업을 잇따라 방문, 현지 물류·유통 실태와 시장 동향을 파악했다.

주최의 경제창업극장은 “세계 무역시

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 수출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병수 기자 hbs@skyedaily.com



당진시가 14일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당진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박차

### 내년부터 382억 원 투입

충청남도 당진시가 '당진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을 다진다.

15일 당진시에 따르면 14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종합 전략을 공유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인 '당진시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선행 법정 계획으로 수립됐다.

이는 교통·환경·복지·안전 등 도시 전반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856명의 시민 설문과 6회의 생활 실험실(리빙 랩) 운영 및 3회의 실무부서 면담을 거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현실성과 실효

성을 높였다.

또한 시의 공간적 특성과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등의 약점을 개선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지능형 기동(스마트 풀)·인공지능(AI) 기반 약막힘 제어 등 실제 사업화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시는 스마트 특화 구역 지정 및 당진시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향후 광역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 도시계획을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공모사업을 통해 총 25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포함한 총 3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이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통해 당진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진서 기자 jjs@skyedaily.com

# 전북교육청, 학교 단위 탄소중립 실천 앞장

### 77개교 1200만 원까지 지원 학급 단위는 100만 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단위 학교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5학년도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학급 중심으로 150개 학급·40개교에서 운영했던 것을 올해는 77개 학교·50개 학급을 선정해 학교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탄소중립 실천 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1일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운영 방향과 세부 계획을 안내했다.

또한 담당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컨설팅·우수사례 나눔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급)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운영을 통해 학급 단위의 활동을 넘어 학교 전체가 친환경 실천 공동체로 전환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병수 기자 hbs@skyedaily.com

# 보령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 안 검진' 실시

###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맞손 안약 등 처방 돌보기도 제공

충청남도 보령시가 14일 주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안(眼) 검진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실명예방관리사업으로 2025년 찾아가는 무료 안 검진 사업에 주포면이 선정되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검진은 안과 전문의가 참여해 시력·안압·굴절 검사뿐 아니라 안저 및 세극등현미경을 활용한 정밀 검사와 상담을 진행



보령시가 14일 주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안 검진을 실시했다.

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인공물·안약 등을 처방하고 돌보기도 제공했다.

이번 무료 검진을 통해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주요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

하고 치료를 유도해 어르신들의 실명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무료 안 검진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어르신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우선 제공되며 검진 결과와 수술이 필요한 안질환이 발견된 어르신 중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개안수술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이번 안 검진이 지역 어르신들의 눈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매우 뜻깊다”며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애 기자 jjs@skyedaily.com

귀농·귀촌 성공 비결, 무엇이든

Y-FARM EXPO 2025 박람회

충청남도 통합부스로 만나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와이-팜 엑스포 2025'에 도내 13개 시군과 통합부스로 참가한다.

## 충남 '와이-팜 엑스포' 참가 귀농·귀촌 지원 정책 홍보

충청남도가 충남의 우수한 귀농·귀촌 여건과 도의 지원 정책을 전국 도시민과 청년들에게 알린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5일부터 27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와이-팜 엑스포(Y-FARM EXPO) 2025'에 도내 13개 시군과 통합 부스로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귀농·귀촌 지역 살리기 박람회'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귀농·귀촌 관련 전시와 강의·특강 등이 펼쳐진다.

이번 엑스포에서 도 농업기술원은 도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충남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우수 정착 사례를 소개하고 농지·토지 구입 상담 등을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와 함께 도시민 귀농 지원센터 운영을 안내하고 방문객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손병운 주무관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더 많은 도시민과 청년이 충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진서 기자 jjs@skyedaily.com